

하나님의 구원계획

찬양해요

찬송가 421장

기도해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

말씀을 읽어요

사도행전 7:30-38

30 사십 년이 차매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31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32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33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34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35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36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사십 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37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8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말씀 이해하기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출애굽을 성취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깨어 있는 영적 리더자를 세우셔서 한 가정, 한 나라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모세는 12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인생을 세 시기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삶의 삶이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으며, 세 번째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출애굽을 인도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인생의 전환점(turning point)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게 됩니다. 이전까지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나는 할 수 있다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부르신 이후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나는 할 수 없다의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와 통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모세의 모습처럼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 드리는 나는 할 수 없다의 모습으로 나와 우리 가정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생각해
보기

1.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30절)?
 - ▶ 사십 년이 차매 천사가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2.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어디로 갔습니까(34절)?
 - ▶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3. 모세는 애굽과 홍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까(36절)?
 - ▶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4.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가족과 함께 나눠 봅시다.
5.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까? 나의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 또는 가정을 품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신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힘과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가정이 되게 하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